



모이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강위 소식지 VOL. 4



발행 : 정진용 | 발행일 : 2026.05.19.(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탄압을 넘어 조직으로, 코레스지회 조직강화 본격화

설립초기 위기 극복... 대주 코레스지회와 연대 속 조직배가·공동투쟁 추진



[경주=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소식]

2026년 1월 20일 경주지부 사무실과 코레스지회 현장에서 전북지부 대주코레스지회 간부 방문 간담회와 현장 순회가 진행됐다. 이날 양 지회는 조직강화와 공동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대주코레스지회는 설립 이전부터 사측과 어용노조의 임단협 축소, 상여금 삭감, 고용불안 조성,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중용 등 구조적인 압박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레스지회와 대주코레스지회가 복수노조 환경 속에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탄압과 방해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실천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지회 설립 과정에서도 창구단일화 문제 제기과 절차 시비,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모욕, 폭력까지 이어지며 조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회는 공문 대응과 현장 조직화를



금속 경주지부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코레스노동조합

(주 5531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원주산단 6로 256
TEL:010.8406.9440 FAX:070.4276.5508

문서번호: 전코노2026-03-01

시행일자: 2026.03.03

수신: 주식회사 대주코레스 대표이사

참조: 노무담당

제목: 단체협약 해석 요청 회신의 건

노동기본권 침해! 노동준수사회진설! 노동탄압분쇄!

- 항상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 한국노동 코레스노동조합은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써, 단체협약 제 21조의 해석 및 노사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드립니다.
 - 타격지탄 전주공장과 경주공장에 전환배치 의미함을 확인함.
 - 전환배치와 팀 간의 이동으로 노사 협의 사항임을 확인함.
 - 라인배치는 단체협약 상 협의가 필요한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라인배치는 해당 팀에서 생산량 변동과 원인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었으며, 노사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제조업 특성 상 필수적인 운영관행임을 확인함.
- 노사는 2025년 전북2025부해 142/부노7 심판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 회신으로 노사 신뢰관계의 유지가 지속되고, 또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심판사건 의결결과 알림

- 관련: 전북2026부해44/부노3 병합 대주코레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전부인정하는 판정 결정을 하였으며,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병행하며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이어 대주코레스지회 설립 이후에는 두 지회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경영자료 분석과 임단협 결과 공유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왔다. 또한 투쟁기금 전달과



상호 방문을 통해 연대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투쟁 체계를 형성했다.

장진호 지회장은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탄압을 현장의 힘으로 버텼다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냈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는 방어를 넘어 조직 확대와 주도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권보배 지회장은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지만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며 두 지회가 함께 조직배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공동 대응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사측은 어용노조를 활용해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했으며, 이에 맞선 민주노조의 조직 확대는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타임오프 배분, 사무실 설치, 고용안정, 수당 지급 등 기본 권리 문제에서도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레스지회와 대주코레스지회는 2026년 사업의 핵심을 조직배가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 순회와 조합원 소통, 간부 중심 조직화 사업을 병행하며 조합원 확대와 내부 결속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연대 대응 원칙을 세우고 실질적인 교섭력 확보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양 지회는 향후 재방문을 통한 현장 점검과 조직 확대 사업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공동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코레스지회는 설립 초기의 탄압과 위기를 넘어 조직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조직 확대와 현장 장악력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대주코레스지회와의 연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레스지회와 대주코레스지회는 조직 확대와 권리 쟁취를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